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017~2021]

2017. 1.



문화체육관광부

|| 목 차 ||

I. 계획수립의 배경 및 주요 경과	1
II. 그간의 성과와 한계	2
III. 계획의 의의 및 정책 기조	5
IV. 계획 추진체계	9
V. 전략 및 중점과제	10
<전략 1>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10
<전략 2>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17
<전략 3>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24
VI. 주요 기대효과	35
VII. 과제별 추진기관 및 일정(안)	36

I. 계획수립의 배경 및 주요 경과

□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서 인문정신문화 진흥 추진

- 국가경제의 성장에 비해 개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향상되지 못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동체 해체 위기가 대두

【2016 OECD 사회지표(35개국 中)】 삶의 만족도 28위(5.8/10점),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 65세 이상 노인 절반이상 빈곤(평균의 4배), 사회적 연계(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의 존재 여부) 최저, 타인에 대한 신뢰 26.6%(평균 36%)

-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지혜 함양을 본질로 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필요
- 인문정신문화가 개인과 공동체 위기 해결 및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정책 추진

□ 법적 근거에 따라 중장기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수립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3. /교육부, 문체부 공동), 국가 차원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마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포함사항

①기본 목표 및 방향	②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③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④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⑤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⑥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⑦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지원·관리	⑧국내외 교류협력
⑨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⑩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15.11.~'16.5.)
 - * 인문정신문화 중장기 정책 연구(책임 :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 내부검토 및 전문가 자문('16.5~10.)
 - *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산, 국제교류 활성화 등 관련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및 보완('16.11.~12.)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심의('16.12.)

Ⅱ. 그간의 성과와 한계

- ◆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일방적 수혜에 머물러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와 주체적인 소비는 부족

[성과①]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

- 인문탐방, 독서토론 등 문체부 지원 프로그램 통해 연간 약 88만명 참여, '길 위의 인문학' 등은 상당수가 생애 첫 경험자로 저변 확대에 일조

【문체부 지원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15년 77만명 → '16년 88만명

【생애 첫 참여자】 '15년 인문독서아카데미 53%, '16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45%

[한계①] 단순 지식 위주로 인문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부족

- 입문유도 차원에서 수혜자 확대에 집중한 결과 단기 강의 위주로 진행, 심화 과정이 부족하고 수동적·단편적 지식 습득에 머무는 경향
 - * 서울 및 지역대표도서관(113개관 234개 프로그램 자체조사) : 강의 77%, 단기(15회미만) 68%
 - * 일부 ○○공예, ○○지도사 과정, 소리로 배우는 영어 등 어학, 자격증 과정 운영 사례

- ◆ 도서관·박물관의 인문 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인문 친화적 공간 적고 현장 인력의 역량에 한계가 있어 동아리 등의 자생적 활동 촉진은 미흡

[성과②] 대표 매개기관인 도서관·박물관의 인문 서비스 확대

- 시설확충, 야간 연장운영 및 통합이용서비스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박물관의 인문 서비스가 양적으로 확충

[한계②] 인문 친화적 공간이 부족하고 현장의 기획역량 강화 요구

- 도서관·박물관 공간의 물리적 한계 및 이용시간 집중, 북카페 등 민간 공간의 운영 불안정으로 동아리 등의 안정적 활동 공간 부족
 - *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결과 주로 활동 공간과 강사·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하나 공공 도서관은 서고도 부족해 도서를 폐기하는 상황으로 동아리 지원 여력 부족
-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서, 학예사 등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졌으나 관련 역량개발 등 교육 지원은 미흡
 - * 사서 취업실태조사 결과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문화행사 프로그램 및 기획 및 '홍보마케팅'

- ◇ 사회적 과제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 초기단계로, 고령화 대응,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격차 해소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한 인문의 본격적 대응 노력이 부족

[성과③] 세대단절, 문화소외 등을 고려한 정책사업 추진

- 사회 문제로 지적된 세대갈등, 문화격차 등에 대응하여 배려, 소통, 나눔과 같은 인문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 추진
- 조손(祖孫)간 전통이야기 전승(이야기할머니), 은퇴세대와 청·소년 간 인문멘토링(인생나눔교실),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대상 독서 지원 등

[한계③] 큰 틀에서 체계적인 선순환 구조 형성 미흡

- 고령사회 진입,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격차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정책 고려 부족
 - * '1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결과, 당면현안 1위 일자리, 2위 빈부격차, 3위 저출산 고령화
- 세부사업이 개별적·대증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문역량이 키워지고 재투입되는 등의 선순환 구조는 미흡
- 고령층의 경우 멘토와 같은 사회적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사후활동 촉진책이 없어 단순 참여로 끝나는 상황
- 일자리 창출은 시설인력·강사 채용 같은 직접 지원만 있어 규모가 한정적이며, 일거리 발굴·교육·연계 등의 간접적 촉진 정책은 부족
 - * 고령층 증가, 대학 내 전공인력 활동영역 축소, 인문에 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등으로 관련 일자리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모든 사업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나 접근성 등에 일부 편차가 있고 교육·컨설팅 등 매개인력은 중앙 인재에 의존하는 경향

【규모】 대표 강좌사업 최근 3년간 광역 지원 비율 증가('14년 36%→'16년 39%), 특히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경우 지원 탈락률이 기초는 상승하고 광역은 줄어들어 광역지원 중심 추세 ('14년 대비 '16년 탈락률 광역 36%→25%, 기초 19%→21%)

【내용】 도서관 맞춤형 컨설팅단, 사업평가단 등의 경우 주로 중앙인력 활용, 인문예술 콘서트 특별편 및 인생나눔축제 등의 행사 서울집중 개최

- ◇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전담 조직 및 예산 확대 등으로 기틀은 갖추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기초적 역량과 촘촘한 협력체계는 미흡

[성과④]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법·제도적 기틀 마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3. /교육부, 문체부 공동)으로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의 법적 토대 구축
- 국민행복의 정신적 기반으로 인문정신문화의 중요성 강조, 국정과제 설정('13.5.), 전담조직 신설('14.2.), 재정 확대 등 행·재정적 기틀 마련
- * '14년 대비 '16년 인문정신문화 진흥 예산 약 1.7배 증가(427억원→739억원)

[한계④]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기반 구축이 과제

- 기초통계, 세부 실태조사 등이 풍부하지 않고 매년 사업별 평가를 진행하나 추적조사 등이 없어 합리적·실질적 평가가 부족

【실태조사】 독서율과 독서량, 전국 도서관·박물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 등 기초적 양적 지표 파악 수준

【사업평가】 사업마다 다르고 주로 직접지원 대상으로 일회적 사후 만족도 조사 위주로 실시

- 독자적 정책 영역 확립에 집중하면서 타 기관·부처 등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못해 사업효과 확산이 제약
- *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복지부, 통일부 등과 협력 중이나 주로 소관 복지시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공동과제 발굴 및 정책화는 미흡
- 정책 추진 초기로 재원 규모 및 법제화 역시 기초 수준, 향후 관련 재원의 지속적 확충 및 법제도 연동 없이는 정책의 중장기 안착 곤란
- 종합적인 홍보전략 부재로 사업별 예산에 맞춰서 진행함에 따라 일관된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이 부족해 사회 인식 제고에 한계

Ⅲ. 계획의 의의 및 정책 기초

1

계획의 의의

□ '제1차' 계획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결정

- 대학 내 인문학 연구에서 국민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진흥으로 확장
- 지식이 인성과 교양으로 내면화되고 삶에서의 실천으로 발현되도록 지원하여 '사람의 위엄에 어울리는 사회' 조성에 기여
- 주체적 성찰과 같은 인문의 본연적 기능을 더 깊게 추구하고, 사회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나친 인식은 경계
-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주체적 인문 소비자가 되도록 매개인력을 양성하고 일부 수익자 부담 등을 통해 자발적 활동을 촉진

□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의 지속적 진흥을 추구

- '교양의 내면화', '실천하는 삶'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에 집중
- 고령화, 일자리, 지역격차와 같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고 산업과의 융합까지 선도, 인문의 기능을 더 넓게 확장
- 정책방향에 맞게 예산, 사업, 인력, 조직 등을 연동하여 사업 효과의 장기적 정착을 지향

※ 과거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07, 교육인적자원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14, 교육부·문화부)는 법정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계획'으로 관련 분야 연계를 통한 동반 발전 도모

-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핵심 정책을 역점 추진하되 관계 부처·기관, 관련 기본계획과 협력하여 시너지 창출 유도

【관계 부처】 교육부(인문학), 복지부(고령화), 고용부(일자리), 국방부·법무부(인문교육), 미래부(콘텐츠) 등
【관련 계획】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17-2021),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문학진흥기본계획(2017-2021)
-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연계, △전문가 풀 공동 활용, △학술교류 및 기초정보 확충 등 유기적 협력

정책기초 01

<더 깊게> 인문의 본질을 추구한다

지금까지는 : 일방적, 실용성 치중

- 도구적, 실용적 접근 확산
- 수혜자 확대에 치중
- 매개자 교육 및 활동지원 소홀

이제부터는 : 자생적, 본질에 집중

- 인문의 본질에 충실
- 수익자 부담 등으로 자생력 제고
- 매개자의 체계적 육성에 집중

과제 예시

01
보다 더
본질을 탐구할 수 있도록

- 중장기 심화 강좌 확대
 - ①(가칭) 주제심화 과정
 - ②고전인문학당
 - ③(가칭) AI와 휴머니티

02
인문동아리가
마음껏 활동하도록!

- [가칭] 문화소통 공간나눔
- 동아리 멘토 파견
-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
-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 도서관·박물관 인문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03
인문매개자가
뛰어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 전공인력 인문활동가 파견
- 사서교육원 개편
- 학예사·사서 전문교육 강화
- 중장기 매개 전문교육과정 개설·확충

정책기조 02

<보다 넓게> 인문으로 사회적 화두에 적극 답한다

지금까지는 : 사업중심, 중앙편향

- 사회 구조 변화에 소홀
- 실질적 지역 배려 부족
- 산업적 활용 미흡

이제부터는 : 현장중심, 지역집중

- 고령화, 일자리 적극 대응
- 보다 지역 중심 사업 운영
- 콘텐츠·관광과의 연계 강화

과제 예시

01

고령층이 인문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게끔!

- 독서치유학교
- 은퇴인력 작은도서관 파견
- 이야기할머니 및 인생나눔교실 개선

02

인문이
일거리가 되도록!

- 인문 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 창업 아카데미 운영
- 잡페어 개최

03

지역이 인문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 비수도권 지원 확대('17년 60%→'21년 75%)
- 컨설팅 사업 지역인력 참여 할당
- 성과공유행사 지역순회 개최

04

인문으로
산업의 부가 가치를 더 크게!

- [가칭] '관광에 인문을 입히다' 사업
- 이야기뱅크 DB 확대

정책기조 03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인문 진흥의 기반을 다진다

지금까지는 : 단기, 분절적 추진

- 조사·통계 부족
- 단기 자체평가 중심으로 실효성 미흡
- 사업별 홍보
- 소관 위주 정책 추진

이제부터는 : 중장기, 협력 및 제도화

- 데이터 축적·활용 확대
- 합리적 평가 및 법제 개선 연동
- 홍보전략 수립 및 체계적 홍보
- 촘촘한 협력망 구축

과제 예시

01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정책이 되도록

- 인문지수 개발
- 해외박물관 한국실 전수조사
- 사서취업 실태조사

02

평가와 연구에서
법제도 개선까지!

- 주요사업 매3년 전면평가
- 독서수요 확장 위한 인센티브 제도
- 사서 자격제도 개편
- 박물관·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03

전략적 홍보로
인문에 관심 갖게!

- 종합적 홍보전략 수립
- 교육부 공동 1차년도 집중 홍보

04

인문이 촘촘하고도
넓게 퍼지도록!

- 관계기관 협력망 구축
- 인문주간-독서의달 연계 사업 운영
- 전공인력 등 인력풀 공동 활용

IV. 계획 추진체계

<p>비전</p>	<p>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 향상</p>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 ◆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p>정책 기조</p>	<p>01. 더 깊게 인문의 본질을 추구한다</p> <p>02. 보다 넓게 인문으로 사회적 화두에 적극 답한다</p> <p>03.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인문 진흥의 기반을 다진다</p>
<p>전략 및 중점 과제</p>	<p>전략 1.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p> <p>(중점과제 1)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p> <p>(중점과제 2) 인문활동의 자생력 신장</p> <p>전략 2.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p> <p>(중점과제 3)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p> <p>(중점과제 4) 문화기반시설의 매개역량 강화</p> <p>전략 3.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p> <p>(중점과제 5) 사회적 화두에 적극 대처</p> <p>(중점과제 6) 인문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p> <p>(중점과제 7)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p>

V. 전략 및 중점과제

전략1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인문학의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식 습득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하여 소통과 나눔 등으로 이어지는 주체적 소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시민성의 회복과 자생적 인문 활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중점과제 1.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

문체부 + 교육부 + 민간

◆ 인문에 대한 깊은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 배려, 소통 등 인문 가치의 내재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1. 길 위의 인문학 등 기존 브랜드 프로그램의 내실화

- (길 위의 인문학) 우수 프로그램 사례 공유, 지역별 특화 운영, 토론 확대 및 기획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주제·형식 다양화
- (이야기할머니) 지자체 재정 분담 참여, 순수 자원봉사 확대 등을 통해 활동 인원* 및 파견 유아교육기관** 확대
 - * 연간 이야기할머니 활동 인원 : '16년 2.5천명→'21년 3천명
 - ** 전체 대상기관(3~5세, 17,000개) 대비 파견율 : '16년 39% → '21년 50%
- (인생나눔교실) 기존 학생, 군인 외에 감정노동자, 취업준비생 등 선배세대 연륜 및 위안이 필요한 신규 대상 포함 운영 확대
 - * '16년 2.5천회→'21년 3천회 멘토링 실시

2. 깊이 있는 성찰을 위한 심화 강좌 개발·보급

- (장르 연계) 특정 주제별로 도서관(문사철), 박물관(사학), 문학관(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심화과정 기획 개발

【예시】 ①일제강점기 등 특정시기, 중국, 일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문학(문학관, 도서관)→ 역사(박물관)→미술(미술관)→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도서관)를 훑는 '주제통달' 과정
②문사철-시서화-음악을 연계하여 특정 시대, 작가, 작품 등을 개관하는 '시대고전' 과정

- (주제 심화) '중국' 등 특정 분야를 전방위로 고찰하는 전문강좌* 시범 개설
 - * 민간 교육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업으로 '17년 2개과정 시범운영

【중국과정 예시】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예술, 과학, 역사, 인물을 인문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통찰하는 1년 이상 전문강좌

- (고전인문학당) 필독 고전목록을 정하여 공동읽기 및 토론을 진행하는 '고전인문학당' 확대('16년 30개 도서관→'21년 150개관)

【고전인문학당 사례: 대구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 시카고대학의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고전읽기 및 토론 프로그램으로 12년차까지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장기 프로그램

- (민간저술 촉진) 자서전, 향토문화연구, 지역인물조사 등 저술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개인경험·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확산
- (통섭 과정) 인공지능(AI)과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 발전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통섭과정 운영('17년 시범)
- (모델 확산) 심화강좌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성과가 있는 경우, 도서관·박물관 등으로 단계적 확산('18년 이후)
 - 자발성 제고 위해 일부 수익자 부담 도입(동아리 활동 등으로 재투입)

3 폭넓은 사유의 근간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 (유아) 생애 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북스타트 지원
- (아동·청소년) 독서토론, 독서캠프, 독서동아리 등 초·중·고 독서활동 지원 및 교사와 부모 대상 독서교육 확대('16년 300명→'19년 500명)

* 학생의 독서습관은 교사와 부모에 큰 영향, 스스로 읽는 힘을 키우는 교육은 부족('15 국민독서실태조사)

【교사와 부모의 중요성】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부모나 교사로부터 독서 권유를 받은 경험이 많음 (연 100권이상 다독자 중 독서 권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77%, 무독서자는 38%에 불과)

【독후감쓰기에 집중된 독서교육】 학교 독서지도 중 독후감쓰기 압도적 1위(77.8% 중복응답), 2, 3위가 도서관 이용 및 학습과제 해결인 반면 독서법 및 토론은 4, 5위에 그침

- (청·장년) 대학 연합 독서동아리, 직장 1사 1동아리 지원 등 토론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자생적 동아리 활동 집중 지원
- (어르신) 큰활자책 제작·보급('17년 3만권) 등 어르신의 독서접근성 보장으로 독서 참여활동 기회 확대

4] 가정, 직장 등 일상에서의 책읽기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책 읽는 가정) '책 읽는 가족' 인증 캠페인 및 모범사례 대상 프로그램 지원으로 가정내 책 읽는 분위기 확산
 - * '16년 총 1.2만 인증가정 중 모범사례 선정, '17년 인문독서예술캠프 참여 지원
- (책 읽는 일터)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확대('16년 50개→'21년 누적 200개), 컨설팅 및 인문프로그램 지원으로 꾸준한 질 유지
- (책 읽는 지하철) 역 플랫폼마다 책을 비치하여 지하철 안에서 읽고, 내리는 역 플랫폼에 반납하는 자율 이용 방식으로 운영
 - *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17년 비수도권 일부 지역 시범운영 추진

중점과제 2. 인문활동의 자생력 신장

문체부 + 교육부 + 지자체

◇ 누구나 인문지식 습득을 넘어 소통과 책임의식을 가진 공공적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인문활동의 자생 기반 마련

1. 공간·인력·정보 지원으로 동아리 활동 역량 강화

- (공간확보 지원) 동아리 활동의 선결요건인 모임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 일부 지원('17년 10개→'21년 50개 동아리)

【독서동아리 실태조사('12년 전국, '15년 서울)】 3년 이내 신생동아리가 약 60% 내외로 신규 결성은 활발하나 장기 지속성 낮은 상황, 주로 공간, 강사 등 프로그램 지원 요구

- (역량강화 지원) 리더 역량교육 및 전문가 멘토 컨설팅 지원으로 단체 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의 운영 노하우 전수('17년 20명→'21년 40명)
- (정보 교류) 매년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9월 독서대전 연계) 개최, 동아리간 활발한 정보 교류로 상호 진화 촉진
- (평가 활용) 3년주기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중장기 사업효과 분석, 도서관 운영평가 등을 통해 질적 보완 및 사회적 확산에 활용

【사업효과】 지역 내 동아리 수 및 활동 변화, 리더 교육 및 멘토 컨설팅 지원 동아리 추적 조사, 공간지원 비참여대상과의 비교 등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분석 후 △도서관 독서동아리 및 △지역사회 유대활동 지표에 인센티브 마련

2. 인문매개자 육성으로 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

- (인력 양성) 인생나눔교실 멘토, 책읽어주는 봉사단 등의 참여자 ('16년 5,200여명) 중에서 선별 교육을 통해 전문 인문활동가로 양성

* 역량 및 수요를 감안, '17년 자원봉사 형태로 50명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대

- **(전문인력 활용)** 비전임교원, 전공인력 등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평생학습교육원 등에 파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 ('17년) 도서관·박물관, 지자체 50명 시범 → ('21년) 민간동아리, 독서경영 기업, 평생학습교육원, 교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인력 관리)** 학회·단체, 도서관·박물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인력 포함 연구자, 전현직 교원, 활동가 등 인력풀 확보·관리
 - * 인문360° 및 도서관 사람책(휴먼 라이브러리) 등 관련 사이트 연계·활용
- **(맞춤형 재교육)** 강사, 기획자, 동아리 운영자 등 역할별 실습위주 교육 개발 및 인문 전담기관과 민간 교육기관 간 교육 협업

【공통교육】 인문활동가 역할, 파견기관 현황 및 특성 이해, 행정사항 등 기본적 소양
【전문교육】 △멘토 교육(독서동아리 및 학습공동체 운영방안, 단계별 우수사례 등), △강의운영 노하우 교육(대상별 강의 구성·운영방안, 융합형 인재양성교육법 등)

- **(일자리 창출)** 기관별 인문프로그램에 지역 현장인력 기용 유도,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 강의 수강 → 동아리 활동 → 학습봉사 등 사회활동 → 사회적기업 설립 등 자생적 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단계별 컨설팅 및 활동 지원

3] 중장기 인문·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기능 전문화

- **(매개 전문과정 개설)**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관리를 위해 인문·문화예술 매개 전문과정 개설·확충
- **(교육 품질 제고)** 매개자별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핵심역량 발굴 및 단계별 표준과정 운영,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로 교육 질 제고

<사례> 인문 매개자에서 주체적 활동가가 된 송인호씨

60세 송인호씨는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인생 나눔교실'의 멘토이다. 그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매개자 양성 교육'을 듣고 마을 공동체와 노인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전담기관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언 받았다. 인생나눔교실의 멘티로 인연을 맺은 중학생들과 함께 동네 노인정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자서전 만들기,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한 후 전에 느껴보지 못한 보람을 느낀 송인호씨. 이제는 동료 인생나눔멘토, 마을 주민까지 참여해 매주 수요일 점심 함께하는 동네밥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이다.

◇ 흐름 : 사업 참여 ▶ 인문 매개자 양성 교육 수강 ▶ 현장 활동 ▶ 자생조직화

《 인문 매개자 양성·파견 흐름 》



[지역인력]대학·HK연구소

- 파견기관 인적 네트워크
- 지역 HK 연구소 추천

[공통]관련학회·단체 추천

[민간교육기관] 강의노하우 전수

- 공통소양교육
 - 인문정신 융합형 인재교육 필요성 등
- 강의운영 노하우 교육
 - 장기 강의 구성운영 방안 (분야별 주제·커리큘럼 세부구성 등)
 - 융합형 교육 사례, 교수법 (인문·과학 융합 관련 핵심주제 등)

[전담기관] 전문가 현장 교육

- 공통 교육
 - 파견기관 현황 및 특성, 운영 관련 행정사항
- 동아리 멘토 교육
 - 독서동아리 및 학습공동체 운영방안
 - 진화단계별 우수사례 (독서-토론-학습-사회활동)

[공공도서관]

- 역량보유 기초도서관
-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지역의 대표도서관

[국립박물관·미술관]

- 수도권 및 지역 거점

[지자체]

- 독서대전 개최지
- 인문도시 조성조례 시행 등 추진의지 보유 지자체

[민간 동아리]

- 북카페 등의 활동우수 동아리

[독서경영 우수직장]

- 인증기업(인력매칭 지원, 활동비는 자체부담)

[그외 법상 인문교육기관 등]

- 교육부(평생학습시설)
- 법무부(교정시설)
- 보건복지부(복지시설)
- 여성가족부(청소년시설)

1. 인력 및 프로그램 정보	2. 현장 활동 교육	3. 프로그램 기획	4. 활동 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인문360° ▪ (분산) 도서관, 전담 기관, 단체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전문가의 실습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담당자 : 공통교육 - 전문가 : 동아리 리더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자체 ▪ (일반) 기업,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부담 재원으로 동아리 등 공동활동 유도 ▪ 사회활동 조직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결성 등 교육컨설팅 ▪ 활동 우수사례 확산



“인문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인문 활동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매개역량 강화 등 인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중점과제 3.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

문체부 + 문화재청 + 지자체

◇ 도서관·박물관 등 전국의 문화시설과 공·민영자산을 인문활동과 인문정신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

1 문화소통을 위한 공간나눔 활성화

- (인문공간 협력망) 거점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카페 등과 협력하여 인문활동을 위한 장소 및 콘텐츠 제공
 - 민간시설에 도서관 소장도서의 장기 관외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활용 시간대별 공간 이용체계 구축·제공, 참여 민간시설에 보유 장서 장기대출, 동아리 리더교육 및 멘토 컨설팅 지원

* 정보이용체계 : ('17년) 도서관별 홈페이지 → ('18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인 활용 통합제공

【민간시설】 도서관과 협업하여 저자초청 등 프로그램 운영, 정기이용시 할인 등 제공

- ('1관 1단' 지원) 도서관·박물관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1관 1단) 활동 지원 및 단계적 확산
 - * '16년 61개 도서관·박물관 참여 → '17년 미술관까지 포함 90개, 이후 단계적 확산
- (공간나눔 캠페인) 공간나눔의 확산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여 카페, 서점 등 참여 시설에 공간나눔 마크 및 공동홍보 지원

2 도서관·박물관의 인문 친화적 공간 확충

- (리모델링 지원)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동아리방, 세미나실 등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 및 시설 효율성 제고
 - * 예) 이용률이 저조한 구내식당을 동아리방, 세미나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간 확보 및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
- (컨설팅 지원) 시설 이용률과 수요 및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 설계가 되도록 이용현황 조사 및 기관별 컨설팅 지원

③ 지역 인문자산 보전·활용을 통한 '방방곡곡 인문' 실현

- (현장박물관 도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하여 지역인문 거점으로 '현장박물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추진
 - * 현장박물관 : 야외박물관과 같은 개념으로 지역을 이루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곧 전시물이자 전시장으로 활용, 커뮤니티형, 마을형 등으로 분류
- (전통문화공간 활용) 궁, 향교, 서원, 종가 등의 전통문화공간과 선비정신과 같은 전통인문정신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 궁궐 속 작은 도서관 '경복궁 집옥재 인문학', 향교·서원 유교아카데미, 퇴계와 율곡의 선비정신 비교체험(안동, 강릉), 다산 유배길에서 배우는 실학(강진) 등

- (작은 도서관 활용) 지역인력을 활용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역 작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소모임, 가족독서프로그램 등 마을 인문 확산
 - * '17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서울, 강원, 충북)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 실시(시스템연계, 자료공유, 프로그램 연계 등)
 - * 예) 아파트 작은 도서관 다독가정 선정, 지역서점 연계 저자초청 강연, 독서를 시작으로 캠핑, 육아, 교육 등 생활 밀접 다양한 주제로 활동 확산

④ 지역간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문활동이 활발한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프로그램, 성공요인 등 노하우를 타지역에 전수하도록 지원
 - * ('17년) 인문360° 통해 전국 사례 발굴(3개) 및 지자체 참여 사례 공유

* 지역 인문활동 우수사례

【경북 칠곡 인문학 마을】지자체 주관 평생학습 활성화로 주민역량 강화,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주민워크숍 '생각밥상', 마을 사업반장, 마을기자 등) 운영 및 축제 통한 교류

【광주 무양서원 작은도서관】협동조합 주관, 주민 참여 작은도서관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영화 보는 날, 마을 터무늬 찾기, 숲과 나무의 인문학, 무양서원 음악회, 인문학 강좌 마당 개최 등)

- (책의 도시 확산) 매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의 독서동아리, 매개자, 인문프로그램 현황 및 우수사례 등 정보 축적·공유
 - * ('17년) 역대 개최지인 군포, 인천, 강릉 및 '17년 개최지 사례 수집 및 공유

중점과제 4. 문화기반시설의 매개역량 강화

문체부

◇ 도서관·박물관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문정신문화 핵심 기반으로서의 효율적 기능 수행

1 핵심 기반시설인 도서관·박물관 운영 고도화

- (건립·운영 내실화) 도서관·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제 확대 운영, 건립 후 운영 평가인증제 본격 시행

【건립 타당성 평가제】 △(공공도서관) '17년 도입, '18년 이후 법제화, △(공립박물관) '16년 법제화에 따라 '17년 확대 운영(연 1회→2회)

【공립박물관 운영 평가인증제】 ('16년) 법제화,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 ('17년) 대상 전체 평가인증 → ('18년) 사립·대학박물관으로 적용확대 검토

- (대표 박물관) 운영 평가인증제에 따라 지역 대표 공립박물관 선정 (시도 각 1개 '17년), 국립·사립박물관과의 연계로 지역 내 협력 유도
- (정보 내실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화('17) 계기, 시설 정보, 운영 현황 등 정량지표 조사를 고도화하여 유용한 정보 제공
 - 휴관 없는 박물관·미술관 운영('17) 계기 관람객 재방문을 등 실질적 정성지표 개발 및 3년주기 추적조사 실시,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 * 매년 조사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설립·운영주체 구분, 조직 및 인력 세부현황, 목표 및 주요활동, 수지현황, 소장품 및 관람현황 등 추가('17년)
- (도서관·박물관 협력) 국외자료 공동조사, 소장자료 공동연구 및 특별전 연계, 사서·학예사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업무협력 활성화
 - * 예)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 고지도·고문서 특별전 개최, 학생, 일반인, 전공자 등 대상별 현장교육 공동 개발·운영
- (타 시설 연계) 지역문화원, 문학관, 문화의집 등과의 콘텐츠 공동 기획 및 평생학습교육원, 노인시설 등과의 연계 서비스 확대
 - * 예) 지역 노인복지시설 대상 공공도서관 소장 큰활자책 배달서비스 등

② 사서·학예사 등 핵심 매개자의 전문역량 제고

- (현장중심) 현장 요구를 반영한 인력 양성·채용, 자발적 학습 활성화 등으로 인문정신문화의 핵심 매개자인 사서, 학예사 전문성 향상

【2016 사서 취업실태조사 결과】 △학생은 대학의 교과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현장사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 △추가 교과목 역시 학생은 “전자정보조직 및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순이나 현장사서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및 기획”, “도서관 홍보마케팅” 순으로 교육과 현장요구 간 괴리

- (자격요건) 현장 업무를 분석하여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사서 및 학예사 양성 과정과 자격요건 현실화

* 예) 사서 표준 교과목 및 이수요건 명시, 학예사 자격시험 과목 개선 등

- (전문인력 채용) 채용 공고시 세부 역할 명시 및 분야별 채용으로 양성과정부터 전문분야에 맞춘 역량 함양 유도

* 전문직 비율이 낮은 박물관(18%) 우선 추진

- (공동학습) 인문·예술 주제별 연구동아리 결성 및 공동학습 지원, 교육점수 부여, 우수사례 확산 등으로 개인별 전문역량 강화

【'17년 10개관 시범】 △10인 이내, 소속 상관없는 자유결성과 특화기관 소속으로 구분하여 지원, △월 2회 이상 정기 학습모임, 활동결과 및 우수사례 발표(전국도서관대회 연계)

- (심화교육) 대상자별 실무과정 교육, 전국 학예직 워크숍(연2회) 및 우수사례 공유대회('17년) 등으로 매개역량 강화

【도서관】 빠른 정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의 정보활용, 빅데이터 분석, 관련 동향,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홍보마케팅 등 교육

【박물관】 전시, 교육, 국제교류, 홍보 및 마케팅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새롭게 변화하는 박물관계의 흐름 등 교육

- (선진사례 도입) 해외 인적 교류, 현지사례 조사 등 세계 도서관·박물관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형성, 발전사례 국내 도입 촉진

【'17년】 국립중앙박물관-해외○○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해외○○도서관 전문인력 교류, 영월 국제 박물관 포럼, 국제박물관협의회 아태지역협의체(ICOM-ASPAC),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등 국내외 계기 활용

【중장기】 국립세종도서관의 문화예술서비스 강화 후 교류기능 확대

- (사서교육 개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전문교육에 집중하고 사서 이외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은 기관별로 분산하여 교육 확대 및 효율화

【국립중앙도서관 집중】 도서관 사서 1.3만여명 전문성 강화 교육
【기관 분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어린이, 독서교육), 국립세종도서관(문화예술 전문교육), 대학 등 위탁교육기관(디지털 활용)
【유관기관 협업】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33개) 교육 프로그램 협업
【취약분야 배려】 학교, 병영, 교정시설, 작은도서관 등 정보취약관중 대상 맞춤형 방문교육 ('15년 5개과정 10회 900여명 → '18년 10개과정 20회 1,800여명)

③ 국립세종도서관의 인문·문화예술 전문서비스 강화

- (기본방향) 세종시립도서관 건립('19) 계기, 국립세종도서관의 인문·문화예술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책정보 제공 및 사서 전문역량 강화
 - * 당초 정책전문도서관으로 출범했으나 현재 공공도서관 기능 중심 운영(70%), 정책도서관 기능 부족(정책자료 27%, 대출 0.3%에 불과)
- (장서 확충) 유관기관 자료 수집 강화, 교수 등 전문가의 개인 소장 자료 기증 유도로 인문·문화예술 장서 확대('16년 16만책→'20년 32만책)
 - * 문체부 발간자료 중점수집('16년 5,751건→'20년 2만여건), 문화예술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16년 42,783건→'20년 12만여건)
- (전문연구 강화) 문화예술종합목록* 및 주제가이드 구축, 전문가·실무자 워크숍 및 학술대회 등으로 전문연구 지원
 - * 기 구축 중인 정책정보 종합목록(46.5만여건)에 문화예술 분야 확충
- (운영 개선) 장르별 공연·전시와 교육이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문화예술 은퇴인력 등을 강사 및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
 - * 공직자 대상 특강인 '움'을 개편,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까지 확장('17년 시범)
- (네트워크)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 인프라 연계 차원에서 국립박물관단지와 협력 강화

【유관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예술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세계 공연예술도서관·박물관협회(SIBMAS), 예술도서관협회(ARILS) 등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국립세종도서관 주관 '15년 발족, 110개 기관 참여 소장정보 공동활용
【국립박물관단지 개요】 국립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 구축('16년~'23년)

<국립세종도서관 인문·문화예술 전문서비스 강화방안>

2016년

- > 국가 정책정보 수집/서비스
- > 정부부처/공공기관 네트워크

> 인문·문화예술 분야 장서 16만책

- > 공공도서관 기능(70%)
- 아동자료의 대출비율 63.6%

2019년 2월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계기

2020년

- > 국가 정책정보 수집/서비스
+ 인문·문화예술 정책정보 강화
- > 정부부처/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확대

> 인문·문화예술 분야 장서 32만책

- > 공공도서관 기능 축소(30%)
- > 인문·문화예술 전문서비스 강화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인문을 담은 콘텐츠,
관광에 인문을 입히다,
국제화 기반 마련 및 교류 활성화

조사연구 강화,
제도 개선,
협력체계 구축

고령화,
일자리 창출,
지역격차 해소

“인문정신문화가 사람의 위엄에 어울리는 사회, 인간화된 공동체 수립에 기여하도록, 고령화, 일자리 창출, 지역격차 해소 등과 같은 시대적 책무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 확산·발전의 기반을 다진다.”

중점과제 5. 사회적 화두에 적극 대처

문체부 + 고용부 + 법무부 + 국방부

◇ 고령화, 일자리 창출, 지역격차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과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인문정신문화를 통한 사회의 지속 발전 동력 확보

1 국가적 과제인 고령화에 적극 대응, 특화 서비스 강화

- (은퇴전문가 육성) 은퇴 고령인력이 도서관·박물관의 다양한 인문 매개자로 참여*하도록 교육·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등으로의 성장 뒷받침
* 예) 이동식 프로그램 운영(인문버스), 도슨트(안내인), 고령층 대상 인문프로그램 기획 등
- (접근성 강화) 거동이 어려운 노인시설 등에 찾아가기·모셔오기 및 자료 배달서비스, 큰활자책 및 서고 지원

【서고 지원】 고령층이 자주 찾는 스포츠센터,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재교육기관 등에 정년 후 창업, 인생설계, 취미, 귀농, 자원봉사 활동정보, 건강관련 서적 등 비치, 기업후원과도 연계

2 '인문-웰빙'이 결합된 웰빙 프로그램으로 독서치유 개발·확산

- (기본방향) 독서치유를 아동과 고령층부터 성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하여 건강을 위해 찾는 국민 웰빙 프로그램으로 정착화
* ('17년) 도서관 기반 고령층 대상 → ('19년) 학교, 문화시설, 민간시설 활용 아동·청소년, 일반
- (기반구축) 독서치유 정의 및 범위 분석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도서목록 및 표준 프로그램 정립('17년), 내용 전문성 확보 및 운영 편차 해소
* 주로 교육적 차원에서 독서법을 전수하는 독서지도와 달리, 독서치유는 독서를 통한 감정 체험으로 자아성찰, 정서발달 등을 유도하는 심리적 차원 접근
- (사서 고유 영역화) 지도자 양성 과정 개발·운영('17년),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도입 및 사서 자격제도에 반영하여 전문 영역 확립('18년~)

【프로그램】 △상황별(화, 스트레스, 용서, 가족, 대인관계, 노화, 죽음, 사랑 등), △대상별(정서장애, 신체장애, 치매, 암 등) 매뉴얼 및 도서목록 마련·배포

- (민간주도, 일자리 확대) 은퇴인력 및 재능보유자를 독서치유 지도사로 양성하여 자생적 일자리화 및 타 분야 확산 촉진
* 사서, 은퇴 전문인력 → 작가, 예술감독 등으로 양성 확대

3 인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촉진

- (전담기구 설치)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을 일자리 창출 전담 기구로 운영('17년), 교육·활동연계·조사연구 총괄 수행
- (기초조사) 관련 일자리 범위 및 현황 조사로 정책 영역 명확화, 해외사례 및 타 분야 정책 연구로 신규도입 정책 발굴
* 사서 및 학예사 취업실태조사, 인문 프로그램 강사 및 활동 현황 등
- (양성·파견) 핵심 일자리인 동아리·단체 리더, 프로그램 기획자, 콘텐츠 창작자, 마을활동가에 대한 활동수요 선 확보, 후 교육·파견
* '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분야별 전문 기관 연계 4개과정 총 100명 시범 양성 후 역량·수요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 (직업박람회) 직업, 창업사례, 지원정책 등을 종합하여 유관 박람회*에 특별관 참가, 우수사례 및 인력풀 확보 후 독립 직업박람회 개최 추진
* ('17년~'18년) 청년매칭 잡페어(고용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기재부),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서울시) 등 참여 및 유관 박람회 공동 개최 → ('19년) 단독 개최 추진
- (지역 확산) 전담기관은 종사자, 전공인력 등 핵심인력 우선 양성, 이들이 지역 인력 대상 2차 교육을 실시해 매개자 양성 선순환
*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직접 참여, 담당자 컨설팅 등 간접 지원
- (자원봉사 촉진) 정규 일자리 외에도 인생나눔교실 멘토, 이야기할머니 등 사업 참여 매개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알선·활성화

4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정책 배려로 문화격차 해소

- (기본방향) 대표 강좌사업의 비수도권 지원 비중 확대('16년 59% →'19년이후 75%), 인력 활용, 절차성 행사 개최 등도 지역 최우선 배려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 아카데미】 최근 3년간 감소한 비수도권 지원 비율 ('14년 59%→'16년 55%)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19년 이후 75% 유지 목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지원 대비 탈락률 추세 전환(기초 하향, 광역 상향 조정)

- **(인적역량 내재화)** 각종 컨설팅 사업 진행 시 전문가단에 해당 지역 인력을 필수로 참여시켜 업무 경험 및 네트워크 교류 지원
 - * 관련 인력의 수도권 편중으로 컨설팅 참여 전문가도 중앙에 치우치는 경향
 - * '17년 도서관 운영 컨설팅, 길위의 인문학 기획 등에 의무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사업경험 축적)** 연간 성과결산대회, 출범식, 참가자 워크숍 등 절차 차원의 행사를 서울 집중개최에서 참여지역 순회로 전환
 - * '17년 인생나눔교실(발대식, 성과확산대회), 인문360°(인문예술콘서트 오늘 특별판) 등 적용

5 소통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 **(계층)** 점자, 수화영상도서 등 장애인 독서 대체자료 제작·수집 확충, 도서관 다문화 자료실 기반 상호이해 프로그램 및 도서보급 확대
- **(지역)** 농산어촌·도서지역 학교, 도서관, 복지시설에 독서멘토 및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파견,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보급
- **(공간)** 격오지 부대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독서코칭 및 도서, 독서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자기성찰과 소통의 기회 제공

<독서치유 추진방안> 사서의 고유 전문영역화, 고령층에서 일반까지 확대



국민 웰빙 인문 프로그램으로 정착

<예시> '독서치유사'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이승화씨

교사 퇴직 후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이승화씨는 지난 주말 우연히 방문했던 '인문 잡페어' 행사에서 독서 치유 프로그램 수강을 권유받았다. 배움이 삶에 다시 활기를 찾아줄 것이란 생각에 매주 두 번씩 대학교의 인문 교육장을 찾게 된 이승화씨. 독서 치유라는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 교류함으로써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퇴직 후 인생 설계에 자신을 얻은 그녀는 이제 독서치유사 자격증 과정을 수강 중이다. 자격증을 수료한 후에는 어린이집과 청소년 시설에 파견돼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예정이다.

◇ 흐름 : 인문잡페어 '인문홍보관' 참가 ▶ 독서치유 프로그램 수강 ▶ 자격증 취득 등 전문 직업 교육 ▶ 사회 재진입

중점과제 6. 인문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문체부 + 교육부 + 외교부 + 문화재청

◇ 인문정신문화가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을 풍요롭게 하고, 한국의 진수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국제 인문교류 확대

1 인문정신문화를 담은 콘텐츠 발굴·확산

- (전통 기록유산 활용) 우리 조상의 일상 생활사를 담고 있는 민간 기록문화유산 조사·수집·보존 및 DB화 확대(연 2만여건 수집, 600건 DB화)

【우리 조상의 일상 생활사】 구례 운조루, 경주 최부자집, 제주 김만덕 등 우리 선조들의 타인 능해(他人能解,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당)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 발굴 및 홍보

- (지역 콘텐츠) ‘대한민국 10대 문화유전자’ 및 지역의 설화, 역사, 문학, 음식 등과 관련된 스토리 발굴·서비스(스토리테마파크, 인문360° 활용)

【대한민국 10대 문화유전자】 '12년 한국문화의 보편적 특성과 가치 발굴 통한 지속가능한 한류발전 기반 조성 차원에서 발굴, 음식, 정, 자연스러움, 공동체, 어울림, 해학, 흥, 예의, 역동성, 끈기로 구성

- (공연·전시 및 방송) 국립문화기반 시설의 전시 및 공연* 기획공모 및 창작 지원, 미래, 신기술, 국제관계 등 주제 방송협력(미래부 등)

* 예) 세계의 인문정신, 인본주의를 소개하는 르네상스전('15.5~8월/국립중앙박물관)

- (창작활동 지원) 작가, 기획자 등 대상 교육과정에 인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획 소재 발굴 및 역사고증 관련 전문가 풀 및 유물 DB 제공

* '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협업 교육과정 개발·운영 → '18년 전문가풀 서비스

2 '인문을 입힌 관광'으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체험 지원

- (기본방향) 지역 문화·관광업계*와 연계하여 인문자원 활용현황 조사 실시, 지역에 맞는 콘텐츠 발굴 및 관광 협동조합 등과 협업 추진

* 관광두레 PD, 지자체 공무원, 지역문화원, 여행사, 여행동아리, 관광학과 교수 등

- (대표사업 연계) 선비문화, 시간여행 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인문자산 발굴, 길 위의 인문학 10선(17년선정)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컨설팅단 구성시 인문 전문가 포함, 콘텐츠·체험프로그램 발굴, 프리미엄 해설사 교육·운영 협업 등

- (콘텐츠 발굴) 여행 동아리 대상 콘텐츠 공모전 및 상품 인큐베이팅 지원, 여행작가를 활용한 지역별 스토리텔러 발굴 사업 확대

【스토리텔러 발굴】 여행작가가 전통주 장인, 고택의 종친, 전통시장 명물 등 지역명사 발굴 및 스토리 개발, 해당지역 방문객 대상 토크콘서트 등 진행으로 머무는 관광 행태 유도

【스토리 관광 예】 전남 보성의 태백산맥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죽산댁과 함께하는 삼베짜기, 외서댁과 함께하는 치자물 들이기 등), 경북 영양의 음식디미방 속 음식 체험 및 유래 소개 등

-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역축제 및 국제행사 시 인문콘텐츠 연계, 각종 ‘길’ 사업, 폐교·탄광 등 도시재생 공간 등에 프로그램 지원
* '17년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등 연계 시범 프로그램 운영(연 4회)

③ 한국 인문정신의 국제화 생태계 조성

- (네트워크 협업) 재외문화원을 중심으로 세종학당, 해외 한국학 센터 등 해외 소재 인문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사업 발굴·추진

【재외문화원】 28개국 32개소에서 우리 문화 소개 자료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중

【세종학당】 53개국 110개 학당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해외 한국학센터】 35개국 185개소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사업 추진 중

- (기초 조사) 국가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수요, 민간 동호회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지역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
- (콘텐츠 개발) 외국인을 위한 한국인문론 교재 개발 및 단행본, 애니메이션, 다큐, 영화 등 다양한 보급 콘텐츠 개발 활용

【콘텐츠 예시】 △외국인 흥미유발 위해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의 교재, 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제공(한중일 이상적 인간형, 가족문화, 술문화 등 비교 제시), △한국 인문고전 외국어 번역 및 세계화(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문학번역원 협업)

- (프로그램 확산) 주한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체험형 인문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주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

【교류프로그램 예시】 청춘인문 논장관(주한유학생의 한국인문 탐구·발표), 주한 외국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관련 콘텐츠 공모전 및 다문화 공감프로젝트 등

- (국제교류) 매체 활용 인문정신문화 해외 소개, 한중일 인문포럼 등 국제교류행사 정례화, 파워블로거·언론인 초청 등 인적 교류 확대

【주요홍보매체】 Korea(영문 월간지), 한국문학 해외소개지(영문판 계간지), Fact about Korea(년간) 등
【인적 교류】 서울국제작가축제 해외 유명작가 초청(매년 하반기, 14명 내외), 박물관·미술 전시·공연예술·언론 등 문화예술 및 언론분야 해외주요인사 초청(년중 20여명 내외)

4 해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 효율화

- (기본방향)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 집중과 연계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전략 수립·추진
 - * '16년 총 25개국 76개실을 북중미, 유럽, 아시아로 나누어 '18년까지 전수조사(서면 및 방문)
- (거점관 확대·고도화) 아시아, 중남미 등 한류 확산 잠재지역까지 설치 확대, 거점관 고도화로 질제고 등으로 한국실 인프라 확충

한국실 설치 확대 : 한류 잠재지역
(‘17년) 폴란드(바르샤바), 베트남(하노이), (‘19년)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외)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등 단계적 확대
거점관 고도화 : 미국 4개관, 유럽 2개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뉴욕/동부), 브루클린박물관(뉴욕/동부),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워싱턴/동부), LA카운티미술관(LA/서부) (유럽) 국립기메동양박물관(프랑스/파리), 영국박물관(영국/런던)

- (제도 체계화) 국외소재한국실 지원협의체 구성, 역할분담 하에 연간 계획 검토, 문화재 공동조사 및 DB구축, 공동홍보 추진 등 중복 해소

【문체부】 박물관정책과, 시각예술디자인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 (네트워크 구축) 한국실 전문인력(큐레이터) 지원 확대, 전문가 장단기 교류 활성화로 한국실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 협력망 구축
 - *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 3년이상 장기지원 통한 현지 정규직 전환 유도
- (자생력 확보) 민간의 사회공헌사업 연계 촉진, 현지 교민단체 등의 재정후원 및 도슨트 등 참여 활성화
 - * 미 디트로이트미술관 '13년 재정위기를 자선재단 및 시민중심 모금통해 극복한 사례

5 해외 한국 자료실 내실화 기반 구축

- (지원체계 구축) 해외 한국학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기관별 사업 현황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역할 분담 및 종합계획 수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한국학 자료 지원, 국제 자료교류사업 추진 및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개최 등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대학, 국공립도서관, 연구소 및 박물관 등에 한국 관련도서 및 시청각 자료 지원, 도서관 인턴십 운영 등

- (객관적 기준 마련) 지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자료목록 작성기준* 수립 등 해외 한국 자료실 지원 전반에 걸친 표준 매뉴얼 정립('17년)
* 도서분류기준 적용 및 영문서지 제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자료 지원 유도
- (실적과 지원 연계) 주기적 현황조사(2~3년)에 따른 추가지원 결정, MOU 체결시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 조건 신설 등으로 성과 확대
- (운영인력 양성)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 개최 시 한국 자료실 운영인력 참여 확대, 운영 전문성 전수 및 인적 교류 기회 제공

<예시> 인문을 담은 콘텐츠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박형수씨

평소 지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박형수씨. 작가 지망생인 그는 인문 소재 발굴 워크숍에 참가해 인문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역 전문 지식을 지닌 멘토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이후, 그는 박물관에서 지역 설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완성된 시나리오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토리 유통플랫폼('스토리움')에 등록하고 추천스토리로 뽑힌 박형수씨. 그는 당선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이야기를 발전시켰고, 마침내 내년 봄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 흐름 : 인문 소재 발굴 워크숍 참여 ▶ 전문 멘토 컨설팅 ▶ 박물관·도서관 인문 콘텐츠 DB 활용 ▶ 콘텐츠 창작지원 및 개발·상품화

중점과제 7.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

문체부 + 교육부 + 민간

◇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조사연구, 제도화, 협력체계 포함 확고한 정책 토대 구축

1. 조사연구 강화 및 정책 고도화로 꾸준한 질 향상 유도

- (3년 주기 종합검토) 길 위의 인문학, 이야기 할머니, 인생나눔교실 등 주요 사업은 3년마다 전면평가 실시, 발전 전략 보완
- (인문지수 개발) 국민 인문 활동과 인식 수준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 실시 및 정량화된 인문지수 개발로 정책 지향점 설정
 - * ('16년~'17년) 사서 대상 시범조사 후 국민 대상 조사안 개발 → ('18년~) 실태조사 3년주기 실시, 학예사, 교사 등 주요 직군 대상 조사 실시

<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항목(안) >

(1) 인문에 대한 인식 수준	(2) 인문활동 참여도		
	습득	나눔	활용
인문 이해력, 문제 인식 등 주관적 자기 역량 평가	독서, 교육 수강, 인문체험 등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등	업무 활용, 인문콘텐츠 창작 등

- (기반시설 만족도) 국립 문화기반시설 관람객 재방문율, 이용자 만족도, 해외박물관 한국실 이용현황 등 종합실태 파악 및 전략 강화
- (인력수급 현황) 사서·학예사 취업실태조사, 독서동아리 실태조사(추적조사 포함), 민관 인문프로그램 현황조사 등으로 매개자 양성정책의 기초근거 확충

2. 제도 정비를 통한 장기 실효성 강화

- (독서수요 확장) 기업 차원의 도서 구입 및 개인의 독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강구

- (공간개발 유도)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리모델링시 인문 친화적 공간 활용 계획을 평가하여 국고 지원대상 우선지정 검토
 - * 공립박물관·도서관 건립 사전 타당성 평가 제도를 활용, 리모델링 사업 우선 지원
- (사서 역량 제고) 국가·지자체의 사서양성 책임 부여, 사서자격증 표준교과목 지정, 전문영역에 독서치유 규정 등으로 도서관법령 개정

3 정책효과의 전방위 확산 위한 협력 강화

- (범정부)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운영으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의제·담론 발굴, 중앙-지자체-민간* 협업과제로 추진
 -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업 사회공헌, 인문단체·업계 등과 적극 연계
- (관계부처) 인문학 진흥 전담인 교육부와 협업하여 인문주간 연계 프로그램 지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회적 관심 제고 위한 초기 집중홍보* 전개
 - * ('17년) 초기붐업 위한 공동 슬로건·브랜드 개발, 월별 테마 선정 및 홍보매체·콘텐츠 집중, 기획 칼럼·세미나 추진, SNS, 정부·공공기관 매체 전방위 활용 등
- 전문강좌·인력지원 사업 추진 시 실수요를 최우선으로 하여 범정부 지원시설로 대상 확대, 기획부터 협의하여 기관 특성 반영
 - * 대학도서관 및 평생학습관(교육부), 노인복지시설(복지부), 고용지원센터(고용부), 교정시설(법무부) 등
- (유관기관)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을 허브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연계협력 기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책의 실집행 강화
 - * 문학, 출판산업, 이야기산업 등 유관분야의 기본계획 등과 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사회적기업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업
- (학교·문화시설) 전공인력 등을 활용한 도서관 인문강좌, 박물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대학-문화기반시설 간 쌍방향 인문교육 활성화

VI. 주요 기대효과

구 분	2017년	2021년
전략 1.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	• 92만명	• 110만명
심화강좌 개발·보급	• 2개과정, 3개관	• 4개과정, 10개관
동아리 활성화	• 전국 독서동아리 지원 100개 • 멘토파견, 리더양성 20명	• 전국 독서동아리 지원 250개 • 멘토파견, 리더양성 40명
매개자 양성·파견	• 전문가 50명, 일반인 100명	• 전문가 100명, 일반인 150명
전략 2.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	• 공간나눔 참여지자체 4개 • 도서관·박물관 리모델링 지원 12개관	• 공간나눔 참여지자체 10개 • 도서관·박물관 리모델링 지원 22개관
문화기반시설 운영 고도화	• 도서관·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 25개관 • 박물관 운영 평가인증 100개관	• 도서관·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 35개관 • 운영 평가인증 200개관
사서·학예사 전문역량 제고	• 사서·학예사 역량교육 1.5만명 • 연구동아리 지원 10개	• 사서·학예사 역량교육 2.6만명 • 연구동아리 지원 68개
국립세종도서관 인문·문화예술 강화	• 전문장서 14만책 • 문화프로그램 6개과정 800명	• 전문장서 43만책 • 문화프로그램 20개과정 2,000명
전략 3.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고령화 특화서비스 지원	• 은퇴인력 매개자 활용 500명 • 독서치유 10개기관, 600명	• 은퇴인력 매개자 활용 1,500명 • 독서치유 1,000개기관, 6만명
인문 활용 일자리 창출 촉진	• 핵심일자리 교육·파견 100명 • 직업박람회 공동참가	• 핵심 일자리 교육·파견 200명 • 직업박람회 단독 개최
지역, 취약계층 배려 통한 문화격차 해소	• 대표강좌 비수도권 지원 60% • 큰할자책 제작보급 3만권 • 책 읽어주는 봉사단 160명	• 대표강좌 비수도권 지원 75% • 큰할자책 제작보급 20만권 • 책 읽어주는 봉사·단 200명
콘텐츠·관광 연계 통한 산업화	• 기록유산 DB 4,200건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기록유산 DB 6,600건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5개 프로그램 연계
인문교류 등 국제화	• 해외박물관 한국실(누적) 77개관 • 인문교류 프로그램 5,000명	• 해외박물관 한국실(누적) 80개관 • 인문교류 프로그램 7,000명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	•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국민) • 국제학술대회, 인문주간 연계 • 전담기관 네트워크 구축	•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사서, 학예사, 교사, 국민) • 인문교육 쌍방향 협업 • 전담기관 네트워크 확장

VII. 과제별 추진기관 및 일정(안)

전략 및 과제		추진기관 (협조기관)	'17	'18	'19	'20	'21
전략1.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중점과제①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							
①-1	길 위의 인문학 등 기존 브랜드 프로그램의 내실화	문체부					
①-2	깊이 있는 성찰을 위한 심화 강좌 개발·보급	문체부					
①-3	폭넓은 사유의 근간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문체부, 교육부					
①-4	가정, 직장 등 일상에서의 책읽기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전부처					
중점과제② 인문활동의 자생력 신장							
②-1	공간·인력·정보 지원으로 동아리 활동 역량 강화	문체부					
②-2	인문매개자 육성·활용으로 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	문체부 (교육부)					
②-3	중장기 인문·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기능 전문화	문체부					
전략과제2.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중점과제③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							
③-1	문화소통을 위한 공간나눔 활성화	문체부					
③-2	도서관·박물관의 인문 친화적 공간 확충	문체부					
③-3	지역 인문자산 보전·활용을 통한 '방방곡곡 인문' 실현	문체부 (문화재청)					
중점과제④ 문화기반시설의 매개역량 강화							
④-1	핵심 기반시설인 도서관·박물관 운영 고도화	문체부					
④-2	사서·학예사 등 핵심 매개자의 전문역량 제고	문체부					
④-3	국립세종도서관의 인문·문화예술 전문서비스 강화	문체부					
전략3.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중점과제⑤ 사회적 화두에 적극 대처							
⑤-1	국가적 과제인 고령화에 적극 대응, 특화서비스 강화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⑤-2	인문-건강 결합의 웰빙 프로그램으로 독서치유 개발·확산	문체부					

전략 및 과제		추진기관 [협조기관]	'17	'18	'19	'20	'21
5-3	인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촉진	문체부 (고용부)					
5-4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정책 배려로 문화격차 해소	문체부					
5-5	소통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문체부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중점과제⑥ 인문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6-1	인문정신문화를 담은 콘텐츠 발굴·확산	문체부 (교육부, 미래부, 문화재청)					
6-2	'인문을 입힌 관광'으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체험 지원	문체부					
6-3	한국 인문정신의 국제화 생태계 조성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6-4	해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 효율화	문체부 (외교부, 문화재청)					
6-5	해외 한국 자료실 내실화 기반 구축	문체부 (외교부)					
중점과제⑦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							
7-1	조사연구 강화 및 정책 고도화로 꾸준한 질 향상 유도	문체부					
7-2	제도 정비를 통한 장기 실효성 강화	문체부					
7-3	정책효과의 전방위 확산 위한 협력 강화	문체부, 교육부					